

A banner image featuring a dandelion on the left with seeds blowing away, and a traditional Korean tiled roof on the right. The background is a clear blue sky.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 Newsletter

2024년 / 1월 1주차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시작되어 3년여간 재앙적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었던 코로나19와 헤어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해인 갑진년을 맞이합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뜻하지 못한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곳곳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평탄한 일상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지 생각해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과 대한민국에서 우리만을 위한 오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겸손함을 배우는 인문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도 연구원이 가야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우리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더 평화롭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한 내일을 향해 지혜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복 많이 짓고 나누는 새해 여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올림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1일(월): 신정 휴무
- 1월 3일(수): 사무국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2024년 달력 발송

지난 주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한 2024년 달력이 회원 분들의 댁이나 직장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연구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편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도 2024년 달력을 받지 못한 회원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께는 추가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조선 사람 김경천, 시베리아의 별이 되다(1942년 1월 2일)

2015년 13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은 상업영화라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서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영화에 녹여냈다.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은 서로균정서에서 활약한 남자현 선생이 동인(動因)이었고 배우 조진웅이 열연한 속사포가 영화에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식 때 썼다는 시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는 오늘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김경천이 자신의 일기 <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에 쓴 글귀이다.

김경천은 188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부친 김정우와 모친 윤옥연의 5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김정우는 대한제국 육군군기창장으로 일했던 일본 유학파 출신 조선 육군 최고위층 인사였다.

그는 여덟 살 때 서울 사직동으로 이주했고 열 다섯에 경성학당을 졸업했다. 17살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열 아홉에는 육군사관학교 본과에 입학했다. 재학중 경술국치가 일어나 자퇴하려 했으나 독립전쟁을 위해 일본군의 정보를 빼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물 두 살 때 육군사관학교 전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도쿄 제1사단 기병 제1연대에 근무하던 그는 2.8독립선언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그는 1923년 7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9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 회의가 열리고 각 소약민족에게도 권리를 준다함에 우리 동경 유학생이 독립운동의 첫소리를 발하였소. 이때 나는 동경에서 사관학교를 마치고 일본육군 기병 제 1연대 시관으로 있을 때이라. 꿈속같이 기쁜 중에도 불보듯 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소. 그리하여 병으로 수유를 얻어가지고 2월 20일에 경성에 도착하니 도처에 공기가 이상스러웠소.”**

그는 병가를 얻어내는 뒤 경성으로 간 뒤 육사 3년 후배인 지청천, 이응준과 만났다. 세 사람은 사직동에 있는 김경천의 집에 모여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울분을 나누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국외로 탈출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경천과 지청천은 1919년 6월 6일 만주로 망명을 단행했다. 일본군 현역 장교의 망명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제는 두 사람의 체포에 혈안이 되었으며, 현상금 5만엔을 내걸었다. 김경천은 신의주 맞은 편 안동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동비 조달을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등 동지들을 후원하고자 노력했다.

1919년 말 만주를 떠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 김경천은 창해청년단의 총사령관을 맡아 시베리아에 이름을 날리게 된다. 1921년에는 수청의병대의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 혁명세력과 연대해 활동하며 소비에트로부터도 인정받게 된다.

1923년 이후부터 블라디보스톡 극동고려사범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국경경비대에 근무하던 중 소비에트 당국의 한인 인텔리 검거정책으로 인해 9월 29일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당시 이르쿠츠클라와 상해파 공산당으로 양분되어 있던 조선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상해파 공산당이 대거 검거되며 김경천도 붙잡혔다는 설과 소비에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서였다는 설이 있다.

이후 2년 6개월간 복역한 후 1939년 2월 석방되었고, 가족을 찾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코민테른 집단농장에서 채소작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1939년 4월 인민의 적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한인들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다. 그 해 12월 17일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정강제노동수용소 8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정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복역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부인 유정화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다만 독일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실수가 있어 체포된 것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1941년 독소전쟁 발발 후, 김경천은 시베리아로 이감되었고 편지 왕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1942년 1월 2일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1차 검거되어 복역했던 1936년 사건은 1956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1939년 사건은 1959년 역시 무죄가 선고된 후 복권되었으나 그는 이미 17년 전 숨을 놓은 뒤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93년 '정치적 탄압에 의한 희생자의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그의 명예를 복원시켰고 조국은 그 뒤 5년이 흐르고 나서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